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시야란 시선을 한곳에 고정하고 한 번에 볼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한다. 한쪽 눈의 시야는 시선을 중심으로 코 쪽으로 60°이고, 귀 쪽으로 100°이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두 눈의 시야는 약 200°가 된다. 그러나 물체가 두 눈의 시야에 있다고 해서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선을 중심으로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의 시야가 겹치는 120° 범위 안에 있는 물체는 뚜렷하게 볼 수 있지만 두 눈의 시야가 겹치지 않는 양 귀 쪽 40° 범위 안에 있는 물체는 그렇지 않다.

사람의 경우 '보는 것'은 두 눈이 하나의 물체를 주시하는 것이다. 물체를 주시할 때 물체의 상은 각막과 동공을 거쳐 안쪽 막인 망막에 맺히는데, 주시란 두 눈의 시선을 물체 쪽으로 돌려 물체를 똑바로 응시하여 물체의 상이 동공의 중심을 통과해 망막의 황반에 맺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주시하는 시선이 주시선이 되고 응시하는 물체가 주시점이 된다. 망막에는 시세포들이 분포하고 있어 물체의 상을 볼 수 있는데 특히 망막의 황반에는 시세포들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물체를 뚜렷하게 보려면 물체의 상이 두 눈의 황반에 맺혀야 한다. 우리가 움직이는 물체를 주시하거나 움직이면서도 물체를 주시할 수 있는 것은 눈 운동을 통해 물체의 상이 황반에 맺히게 하기 때문이다. 눈 운동은 눈알 바깥에 붙어 있는 4개의 끈은근과 2개의 빗근이 뇌 신경의 지배를 받아 ㉠ 눈알 전체를 상하·좌우로 움직이게 하거나 회전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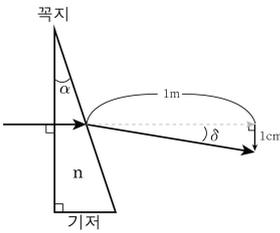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은 동공의 중심을 기준으로 6c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물체를 뚜렷하게 보기 위해서는 각 눈의 주시선을 코 쪽으로 모으는 폭주 운동이 필수적이다. 이때 폭주 운동의 양을 폭주량이라고 하고 폭주량은 미터각으로 나타낼 수 있다. 미터각은 주시하고 있는 물체까지의 거리에 대한 역수,  $\frac{1}{\text{물체까지의 거리}}$ 로 표시한다. 그런데 사람마다 동공 간의 거리인 동공중심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눈과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같더라도 실제 폭주량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실제 폭주량을 알려면 미터각에 동공중심거리를 곱한 값인 프리즘디옵터를 구해야 한다. 만약 동공중심거리가 6cm인 사람이 1m 떨어져 있는 물체를 주시한다면 이때의 미터각은  $\frac{1}{1m} = 1\text{MA}$ 이 된다. 그리고 1MA에 동공중심거리인 6cm를 곱하면 프리즘디옵터는 6△가 된다.

그런데 눈 운동에 이상이 생겨 주시선이 주시하려는 물체를 향하지 못하고 벗어나는 편위가 일어나면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가 발생하여 두통이나 어지럼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복시는 크게 생리적 복시와 사시성 복시로 나눌 수 있는데 생리적 복시는 피로감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기며, 사시성 복시는 뇌 신경의 이상으로 끈은근이나 빗근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해 생긴다.

주시선이 코 쪽으로 편위되어 나타나는 복시를 비교차성 복시라고 하고, 귀 쪽으로 편위되어 나타나는 복시를 교차성 복시라고 한다. 복시인 경우에는 물체의 상이 망막의 황반에 맺히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오른쪽 눈이 비교차성 복시라면 주시선이 코 쪽으로 편위되기 때문에 물체의 상은 망막의 황반보다 코 쪽으로 치우쳐 맺힌다. 하지만 뇌에서는 오른쪽 눈이 편위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물체를 똑바로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주시선이 실제보다 귀 쪽으로 향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물체가 실제의 위치보다 오른쪽에 있다고 느끼게 된다.

생리적 복시는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편위가 발생한 눈을 가린 상태로 시간이 흐르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 반면 사시성 복시는 프리즘 렌즈를 사용하여 복시에 따른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프리즘은 두 개 이상의 평면이 일정한 각을 이루고 있는 투명체로 빛의 진행 방향을 바꿀 수 있다. 프리즘의 평면이 교차하는 점을 꼭지, 교차각을 꼭지각, 꼭지의 반대쪽을 기저라고 하는데, 프리즘을 통과한 빛은 스넬의 법칙을 따라 기저 방향으로 꺾인다. 스넬의 법칙에 따르면 굴절률이 n인 소재의 직각 프리즘이 공기\* 중에 있다고 가정할 때 굴절률(n)에서 1을 뺀 값에 꼭지각( $\alpha$ )을 곱하면 빛의 꺾임각( $\delta$ )을 알 수 있다. <그림>과 같이 직각 프리즘을 통과하여 꺾인 빛이 1m 떨어진 평면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연장선에서 수직으로 1cm 간격에 있을 때의 꺾임각을 1△라 한다. 만일 오른쪽 눈의 주시선이 귀 쪽으로 편위되어 폭주량이 작다면 빛이 프리즘 렌즈를 통과할 때 코 쪽으로 굴절되게 하여 차이 나는 폭주량만큼 꺾임각을 형성하여 주시선을 바꿀 수 있다.

\* 공기의 굴절률은 1이라고 가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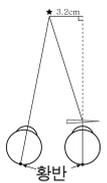
<그림>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주시하고 있는 물체까지의 거리가 멀어지면 미터각은 커진다.
- ② 끈은근과 빗근은 뇌 신경에 의해 움직임이 통제된다.
- ③ 생리적 복시는 피로가 회복되면 치유될 수 있다.
- ④ 프리즘은 빛의 진행 방향을 바꿀 수 있다.
- ⑤ 두 눈의 시야가 겹치는 범위는 120°이다.

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는 오른쪽 눈에 사시성 복시가 있다. 검사 결과 동공중심거리는 6.4cm이고, 1m 떨어져 있는 물체를 바라보는 주시선이 정상일 때보다 귀 쪽으로 3.2cm 편위되어 있다. 직각 프리즘 렌즈를 사용하여 주시선을 교정하려 한다.

- ① 굴절률이 4.2인 직각 프리즘 렌즈를 사용하여 정상적으로 교정이 되었다면 직각 프리즘 렌즈의 꼭지각은 1△이겠군.
- ② 주시선의 교정을 위해 사용하는 직각 프리즘 렌즈를 굴절률이 큰 소재로 만들수록 꼭지각을 작게 할 수 있겠군.
- ③ 꺾임각이 3.2△인 직각 프리즘 렌즈를 사용한다면 1m 떨어져 있는 물체의 상이 오른쪽 눈의 황반에 맺히겠군.
- ④ 직각 프리즘 렌즈를 통해 주시선을 정상적으로 교정하면 폭주량은 6.4△보다 커지겠군.
- ⑤ 끝은근이나 빗근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교차성 복시라고 할 수 있겠군.

3. [A]를 참고할 때 , 보기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 보 기 >

왼쪽 눈이  ㉠ 복시라면 주시하려는 물체의 상은 망막의 황반보다  ㉡에 맺히기 때문에 물체가 실제 위치보다  ㉢에 있다고 느낄 것이다.

- |   |      |     |     |
|---|------|-----|-----|
|   | ㉠    | ㉡   | ㉢   |
| ① | 교차성  | 코 쪽 | 오른쪽 |
| ② | 교차성  | 귀 쪽 | 왼쪽  |
| ③ | 비교차성 | 코 쪽 | 왼쪽  |
| ④ | 비교차성 | 코 쪽 | 오른쪽 |
| ⑤ | 비교차성 | 귀 쪽 | 왼쪽  |

4.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물체의 상이 황반에 맺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② 망막에서 황반이 편위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③ 복시에 따른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 ④ 동공중심거리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 ⑤ 폭주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5-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 .  
시오

현대 사회는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매일 엄청난 양의 자료가 생성·축적되고 있다. 이러한 많은 양의 자료에서 유용한 정보를 찾아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분석 기법이 쓰이는데, 그 중 정책 수립, 기업 관리, 의학 분야 연구, 마케팅 등에 널리 쓰이는 것이 연관성 분석이다. 마케팅 분야를 예로 든다면, 연관성 분석은 수집한 자료 안에 존재하는 품목 간의 연관 규칙을 발견하는 과정을 말하며, 연관 규칙은 ‘고객이 X를 사면 Y도 산다.’의 형태를 띤다. 이때 ‘고객이 X를 산다.’는 조건이 되고 ‘고객이 Y를 산다.’는 결과가 된다. 연관 규칙은 ‘X→Y’와 같이 조건과 결과를 기호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통계학의 확률을 기반으로 한다.

연관성 분석을 통해 유용한 연관 규칙을 찾기 위해서는 대상 품목들이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는지를 측정해야 한다. 연관성 측도의 기본은 발생 빈도로, 이와 관련한 주요 측도에는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가 있다. 먼저 지지도는 전체 거래에 대해서 조건과 결과에 있는 품목들이 함께 구매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X→Y’의 지지도는 X와 Y를 모두 구매하는 거래의 수를 전체 거래의 수로 나눈 값으로, 지지도가 높다는 것은 동시 구매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는 다섯 가지의 품목만 취급하는 편의점에서 다섯 명의 고객이 한 번씩만 거래했다고 가정한 것이다. <표>에서 생수와 빵을 모두 산 경우는 다섯 번의 거래 중 두 번이므로, ‘생수→빵’의 지지도는 2/5(40%)이다.

고객	구매 품목
1	빵, 생수, 우유
2	빵, 휴지, 우유
3	빵, 세제, 우유
4	빵, 생수, 세제
5	생수, 휴지, 우유

<표> ‘빵→생수’의 지지도도 2/5이므로 ‘X→Y’와 ‘Y→X’의 지지도는 같다.

신뢰도는 조건의 구매가 발생하였을 때 결과의 구매가 일어날 확률이다. 즉 ‘X→Y’의 신뢰도는 X와 Y를 모두 구매하는 거래의 수를 X를 구매하는 거래의 수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신뢰도가 높다는 것은 조건의 구매가 발생한 경우에 결과의 구매가 많이 일어남을 의미한다. <표>에서 생수를 구매한 세 번의 거래 중에서 두 번만 빵을 샀으므로, ‘생수→빵’은 2/3(약 66.7%)의 신뢰도를 갖는다. 그런데 ‘빵→생수’의 신뢰도는 2/4(50%)이다. 이처럼 ‘X→Y’와 ‘Y→X’의 신뢰도는 같지 않을 수 있다.

향상도는 어떤 연관 규칙에 대하여 조건 없이 결과가 일어날 확률보다, 조건이 일어났을 때 결과가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더 향상되는지를 알려 주는 측도이다. 향상도는 신뢰도를 기대 신뢰도로 나눈 값이다. 기대 신뢰도란 ‘X→Y’에서 Y를 포함하는 거래의 수를 전체 거래의 수로 나눈 값이다. ‘X→Y’에서 향상도가 1이라는 것은 X와 Y의 구매가 서로 독립적이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X→Y’에서 향상도가 1보다 크다는 것은 X를 구매했을 때 Y를 구매할 확률이, 전체 거래에서 Y를 구매할 확률보다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관 규칙은 결과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우연적 기회보다 우수하여 마케팅 전략을 ④ 세우는 데 유용하게 활용된다. 반면에 ‘X→Y’에서 향상도가 1보다 작다는 것은 X를 구매했을 때 Y를 구매할 확률이, 전체 거래에서 Y를 구매할 확률보다 작다는 것이므로 이 연관 규칙을 마케팅 전략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향상도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음의 연관 규칙을 만들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음의 연관 규칙은 결과에 ‘이다’ 대신에 ‘아니다’를 쓴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연관 규칙과 유

[A] 향

사하다. 예컨대 ‘X→Y’의 신뢰도가 30%이고, ‘X→Y’의 기대 신뢰도가 40%라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X→Y’의 향상도는 3/4으로 1보다 작다. 따라서 이를 음의 연관 규칙, 곧 ‘X를 사면 Y를 사지 않는다.’로 전환하면, 신뢰도는 70%(100% - 30%)가 되고, 기대 신뢰도는 60%(100% - 40%)가 되므로 향상도는 7/6로 1보다 커지게 되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관성 분석은 결과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고, 유용한 연관 규칙의 형태로 주어지므로 마케팅 전략에 적용하기도 좋다. 그러나 분석하려는 품목의 수가 늘어나면 연관 규칙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편적 방법으로 거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품목을 제거하는 최소지지도 가지치기가 있다. 이는 지지도가 낮은 품목을 분석 대상에서 삭제하거나, 하위 품목을 상위 품목으로 일반화하여 품목들이 분석자가 임의로 설정한 최소지지도를 넘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관성 분석은 사건들의 발생 순서는 분석의 고려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그런데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나열한 시계열 자료를 분석하여 선후 사건들 사이의 연관성을 추론할 수도 있다. 이를 ① 시차 연관성 분석이라고 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지를 분석하여 사건들 간의 연관성을 발견하면, 이러한 연관성을 토대로 미래의 사건을 예측하거나 사건들 사이의 인과 관계를 추론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차 연관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나 순서를 알려 주는 정보가 필요하다. 또한 다른 시간대에 일어난 사건이 동일한 분석 대상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려 주는 분석 대상의 식별 정보도 필요하다.

5. 밑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연관성 분석에 쓰이는 측도들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② 시차 연관성 분석의 특징과 분석에 필요한 요소들을 밝히고 있다.
- ③ 연관성 분석이 시대에 따라 변천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④ 연관성 분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⑤ 다양한 분석 기법이 여러 분야에서 널리 쓰이게 된 사회적 배경을 소개하고 있다.

6. 밑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 ① 연관성 분석에서 분석하려는 품목을 상위 품목으로 일반화하면 연관 규칙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 ② 최소지지도 가지치기에는 지지도가 낮은 품목을 분석 대상에서 삭제하는 방법이 있다.
- ③ 연관성 분석은 결과가 명확하고 유용한 연관 규칙의 형태로 주어지는 장점이 있다.
- ④ 향상도가 1이라는 것은 조건과 결과가 서로 독립적이라는 의미이다.
- ⑤ 연관성 측도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발생 빈도이다.

7. 밑글의 <표>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 않은 것은?

- ① '빵→생수'가 '빵→휴지'의 지지도보다 높은 것은 '빵'을 '생수'와 함께 구매한 경우가 '빵'을 '휴지'와 함께 구매한 경우보다 많은 것을 의미한다.
- ② '휴지→우유'의 신뢰도가 100%인 것은 '우유'를 구매한 모든 경우에 '휴지'를 구매한 것을 의미한다.
- ③ '생수→빵'과 '생수→우유'는 '생수→휴지'보다 신뢰도가 높다.
- ④ '우유→생수'의 지지도와 '생수→우유'의 지지도는 같다.
- ⑤ '빵→세제'의 신뢰도와 '세제→빵'의 신뢰도는 다르다.

8. ㉠을 활용한 사례로 적절한 것만을 < 보기 >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보 기 > —

㉠. 어느 병원에서 □□질환을 앓은 환자들을 추적하여, 이들 가운데 이전에 ○○질환을 앓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후 ○○질환을 앓는 환자의 경우에는 □□질환에 대한 예방 치료도 하도록 하였다.

㉡. 대형 유통 업체에서 10월 한 달간 라면과 계란의 판매대를 붙여 놓았을 때와 멀리 떼어 놓았을 때의 판매량을 조사하여, 멀리 떼어 놓았을 때의 판매량이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두 상품의 판매대를 멀리 떼어 놓기로 결정했다.

㉢. 백화점에서 자사의 백화점 카드로 결제한 고객들의 소비 성향을 분석하여, TV를 산 고객들이 재방문하여 고성능 스피커를 구입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아내었다. 이를 토대로 TV를 산 고객들에게 고성능 스피커에 대한 상품 안내서를 우편으로 보냈다.

㉣.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회원들의 웹 페이지 방문 순서를 분석하여, 주로 'A 웹 페이지→B 웹 페이지→C 웹 페이지→……' 순으로 방문한다는 규칙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회원들이 편리하게 이 경로에 따라 방문할 수 있는 회원 전용 웹 페이지를 따로 만들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⑤ ㉡, ㉣

9. [A를 바탕으로 할 때 ,보기] 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어느 매장에서 고객들이 팥빙수를 만들기 위해 구매한 팥(A), 인절미(B), 콩가루(C)의 전체 거래 정보에 대해 연관 분석을 하였다. 다음은 이를 통해 발견한 연관 규칙의 일부이다.

연관 규칙 (X→Y)	기대 신뢰도	신뢰도	향상도	
A→B	42.5%	55.6%	1.308	…… ㉠
B→C	40.0%	35.3%	0.883	…… ㉡
C→A	45.0%	50.0%	1.111	…… ㉢
:	:	:	:	

- ① ㉠의 연관 규칙에서 B를 포함하는 거래의 수를 전체 거래의 수로 나눈 값은 ㉡의 연관 규칙에서 A를 포함하는 거래의 수를 전체 거래의 수로 나눈 값보다 크군.
- ② ㉡의 연관 규칙에서 B를 구매했을 때 C를 구매할 확률은 전체 거래에서 C를 구매할 확률보다 작군.
- ③ ㉡의 연관 규칙의 신뢰도는 ㉢의 음의 연관 규칙의 신뢰도보다 크군.
- ④ ㉡의 연관 규칙이 ㉠의 연관 규칙보다 마케팅 전략에 바로 적용하여 활용하기에 유용하겠군.
- ⑤ ㉢의 연관 규칙을 음의 연관 규칙인 'A→C'로 전환하면 더욱 유용하게 쓸 수 있겠군.

10.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변호사는 그를 증인으로 세웠다.
- ② 시험이 끝난 학생들이 방학 계획을 세웠다.
- ③ 과장은 회사의 실적을 올리는 데 공을 세웠다.
- ④ 목수는 목재를 잘 자르기 위해 톱날을 세웠다.
- ⑤ 우리 학교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전통을 세웠다.

[11~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

서오

현대 철학자 알랭 바디우는 정치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지도자를 뽑아 정부를 잘 운영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사회 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사회 구조의 변화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이에 대해 바디우는 ㉠ '사건'을 계기로 ㉡ '진리'가 만들어지면서 사회 구조가 변화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바디우에 따르면, 사건이란 기존의 사회 구조를 뒤흔들 만큼 충격적인 일이면서 미리 계획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사건은 의도적으로 발생시킬 수 없는 것으로,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일으키지만 사회 전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내의 특정한 지점에서 발생한다. 바디우는 사건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지만 사회 구조 변화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는 사건의 대표적 예로 1871년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났던 파리고뮌을 들고 있다.

바디우는 기존의 사회 구조를 벗어나는 독특한 사건이 발생하면 사회 구성원들은 이 사건을 전에 없던 '이름'으로 부르고 이 이름은 사건이 사라진 후에도 사회에 흔적으로 남는다고 본다. 사건이 사라지고 난 후, 개인이나 집단은 사건의 이름을 통해 사건을 떠올리며 사회 안의 각 요소들과 사건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시도를 한다. 즉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 안의 제도, 행위, 발언 등을 검토하여 그것이 사건을 이어 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가려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사회 안의 요소들 중에서 사건에 충실한 요소와 그렇지 않은 요소를 가려내는 이러한 작업을 바디우는 '탐색'이라고 부르고, 탐색의 판단 기준을 '충실성'이라고 부른다. 이때 탐색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회 안의 특정한 요소를 선택해 그것의 충실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안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 요소들이 사건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조사한다.

바디우는 탐색을 통해 사건에 충실한 것으로 분류된 요소들이 진리를 ㉢ 이룬다고 말한다. 즉 바디우에게 있어 진리란 거짓에 반대되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계기로 이루어진 탐색의 결과이자 사회 안에서 사건에 충실한 요소들

의 집합체이다. 바디우는 이러한 진리는 정치 이외에도 과학, 예술, 사랑의 영역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

바디우는 진리가 만들어지는 과정, 즉 진리 절차에서 진리를 이루는 부분들을 '주체'라고 부른다. 진리를 만들어 가는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 발언 중에서 충실한 요소들이 모여 주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진리 절차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 자신이 곧 주체는 아니며, 그 사람의 행위나 발언 중 사건에 충실한 것만이 주체의 일부가 된다. 이러한 바디우의 시각이 개인을 보잘것없게 만든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다. 어떤 사람이 정치적 활동을 하면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면 이 활동은 정치적 주체의 일부이면서 예술적 주체의 일부가 될 수 있으므로 개인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바디우는 자신의 철학을 펼치면서 사건은 진리가 만들어지는 데 필수적이지만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니라고 강조하며, 사회 구조의 변화를 위해 중요한 것은 우연한 사건보다 시간의 경과 속에서 만들어지는 진리라고 말한다. 이는 바디우가 말하는 '용기'의 중요성과도 연결된다. 바디우에게 있어 용기란 진리를 좇는 용기, 즉 사회 안의 요소들을 진리에 속하는 것과 아닌 것으로 나누는 작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용기이다. 결국 바디우는 사회 구조의 변화를 위해서는 앞으로의 일이 아니라 이미 일어났던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건을 이어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11. 윗글에 제시된 바디우의 견해와 부합하는 것은

- ① 정치의 목적은 정부 운영을 잘하는 것이다.
- ② 사건은 사회 전체에서 일어난 것이어야 의미가 있다.
- ③ 개인은 사회 안의 제도나 행위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
- ④ 거 것이 아닌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을 진리 절차라고 한다.
- ⑤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12. ㉠과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은 ㉡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시발점이 된다.
- ② ㉠은 ㉡이 만들어지는 데 필수적이지만 ㉠ 자체가 ㉡은 아니다.
- ③ ㉡을 이루는 요소는 ㉠을 이어 갈 수 있다고 판단된 것들이다.
- ④ ㉠은 일시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며 ㉡은 시간의 경과 속에서 만들어진다.
- ⑤ ㉡보다 ㉠을 발생시키기 위한 노력이 사회 구조의 변화를 위해 더 중요하다.

13.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인을 하나의 진리 절차에 헌신하는 존재로 보는 것이다.
- ② 개인을 사회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지닌 존재로 보는 것이다.
- ③ 개인을 다수의 진리 절차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로 보는 것이다.
- ④ 개인을 진리의 가치를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이 되는 존재로 보는 것이다.
- ⑤ 개인을 진리에 부합하는 행위에만 동참하는 도덕적 존재로 보는 것이다.

14.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프랑스는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하며 프로이센과 굴욕적인 화평 조약을 맺게 되었다. 이후 임시 국방정부의 수반인 아돌프 티에르가 국민 방위군의 무장 해제를 명령하고 수비대가 보유하고 있던 대포를 철거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분노한 파리 시민들은 몽마르트 언덕에 모여 자연 발생적인 민중 행동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시청을 점거하고 혁명적 자치 정부를 수립하여 여성 참정권 실현, 아동 야간 노동 금지 등의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자치 정부는 두 달 정도 지속되다가 사라졌다. 이 일은 역사에서 시민 계급이 자치적으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한 최초라고 평가되며 '파리코뮌'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 ① 바디우는 파리 시민들에 의해 혁명적 자치 정부가 수립된 일은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기존의 사회 구조를 뒤흔들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보았겠군.
- ② 바디우는 '파리코뮌'이라는 이름은 파리 시민들의 자연 발생적인 민중 행동이 사회 안에 남긴 흔적이라고 보았겠군.
- ③ 바디우는 파리 시민들이 민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연합하여 일으킨 '파리코뮌'은 사회 구조의 변화를 이루어 내기 위한 시도를 지속한 결과 일어난 것이라고 보았겠군.
- ④ 바디우는 프랑스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 안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 여러 요소들과 '파리코뮌'의 관계를 조사함으로써 진리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았겠군.
- ⑤ 바디우는 현재의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파리코뮌'을 이어 가기 위한 탐색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발휘해야 한다고 보았겠군.

15.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성(具成)한다고
- ② 성취(成就)한다고
- ③ 탐구(探究)한다고
- ④ 포괄(包括)한다고
- ⑤ 표방(標榜)한다고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정의(正義)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로 사회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를 개개인에게 할당하고 이익과 부담을 분배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그런데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은 사람마다 다양하다. 따라서 정의의 실현은 정의를 정의(定義)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사회 정의를 말한 대표적인 철학자로는 롤스, 노직, 왈처가 있다. 롤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 노직은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 왈처는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를 ㉠ 주장했다.

롤스의 정의론은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공리주의자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기준으로 사회 전체의 효용성을 높이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 그러나 롤스는 사회적 효용성을 증가시킨다는 명분 아래 개인의 자유가 무시될 수 있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는 혜택을 가장 적게 받는 사람 즉,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실질적 평등을 중시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사회 구성원이 사회적 원칙에 합의할 때 합의의 절차가 공정하다면 절차를 통한 결과는 정의롭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했다. 롤스는 이러한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 두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보았는데, 제1원칙은 모든 사람이 언론과 사상, 종교, 신체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적 자유에 있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다. 제2원칙은 차등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인데, 차등의 원칙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하되 그것이 모든 사람, 그중에서도 특히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하다는 것이고, 기회 균등의 원칙은 사회적 지위나 직책에 접근할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제1원칙은 항상 제2원칙에 우선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롤스는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한 전체로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무지(無知)의 베일'을 쓴, 즉 베일을 둘러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것처럼 자기 자신과 상대의 사회적 지위나 계층, 능력 등을 알지 못하는 ㉡ 원초적 입장에 있다는 가상적 상황을 설정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등한 입장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든다고 봤는데, 이때 인간은 자신이 가장 불우한 계층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에 모든 사람 또는 가장 불리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원칙에 모두 합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롤스의 정의론은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복지 정책과 같은 재분배의 중요성을 보여 줬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지만 원초적 입장이라는 설정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노직은 롤스와 마찬가지로, 공익을 위해서 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고,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다. 그런데 롤스가 차등의 원칙에 따라 소득과 부에 대한 개인의 권리에 제한을 두었던 반면, 노직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사회 정의라고 보며 개인 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 노직은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를 주장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신의 노동력으로 정당하게 취득한 것이라면 그 소유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런 소유물은 개인의 의지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자유롭게 양도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개인

의 소유물 취득과 양도 과정에 문제가 없는 한, 국가가 개인의 소유권에 어떠한 강제도 할 수 없으며, 빈부격차가 심화되더라도 자발적 자선 행위가 아닌 국가 주도의 재분배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역할만을 하는 최소 국가를 옹호한다.

한편 왈처는 롤스와 마찬가지로 분배를 통한 사회 정의의 실현이 중요하다고 봤으나, 원초적 입장이라는 가상적 상황에서 이끌어 낸 단일한 정의의 원칙을 모든 사회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롤스를 비판했다. 그는 사회에는 해당 공동체의 역사적, 문화적 소산인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존재하며, 그 가치마다 그것이 속하는 고유의 영역이 있으므로 서로 다른 영역의 가치는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는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했다. 예를 들어 의료 및 복지라는 가치는 필요에 따라, 돈과 상품은 자유 교환에 따라, 명예 또는 공직은 업적에 따라, 교육은 재능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어떤 영역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이 다른 영역의 재화까지도 쉽게 소유하는 것을 반대하며 경제 영역의 고유 가치인 돈은 경제 영역에만, 정치 영역의 고유 가치인 권력은 정치 영역에만 머물러야 한다고 보았다. 즉 왈처는 현대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돈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다른 영역의 가치를 침범하는 것이라 여겼으며, 명예나 공직과 같은 가치가 돈이라는 가치에 의해 좌우된다면, 그러한 사회는 정의로울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는 사회적 가치들이 자신의 고유한 영역 안에 머무름으로써 복합 평등이 실현될 때 비로소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16. 윗글을 바탕으로 다음 질문에 답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질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가?

- ① 롤스는 '예', 노직은 '아니요'라고 답할 것이다.
- ② 롤스는 '아니요', 노직은 '예'라고 답할 것이다.
- ③ 롤스와 노직은 모두 '예'라고 답할 것이다.
- ④ 롤스와 노직은 모두 '아니요'라고 답할 것이다.
- ⑤ 롤스, 노직, 왈처는 모두 '예'라고 답할 것이다.

17.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리주의자들은 사회 전체의 효용성을 기준으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겠군.
- ② 실질적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겠군.
- ③ 왈처가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는 공동체의 문화적, 역사적 소산으로 분배의 대상이 되겠군.
- ④ 정의는 사회를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로, 철학자들에 따라 정의에 대한 관점이 다를 수 있겠군.
- ⑤ 노직은 국가의 재분배 정책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므로 국가가 최소한의 역할만 해야 한다고 보겠군.

18. 뒷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가) 미국에서는 기여 입학제가 활성화되어 있다. 하버드대와 같은 미국의 명문 사립대학들은 기부금을 많이 낸 사람의 자녀를 기여 입학 대상자로 선정하여 1,600점 기준의 SAT 점수에 160점 정도의 가산점을 준다.
- (나) 미국의 갑부 워런 버핏은 자신의 소득세율이 17.4%인 것에 반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소득세율은 그 두 배 정도인 33~41%라며 연간 소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부유층의 세율을 인상하고 1천만 달러 이상인 사람에게는 초과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걷자고 주장했다.

- ① (가): 롤스의 입장에서 볼 때, 기여 입학제가 지위나 직책에 접근할 기회에 영향을 준다면 기여 입학제는 기회 균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라 할 수 있겠군.
- ② (가): 노직의 입장에서 볼 때, 개인의 재산 정도에 따라 입학의 기회가 결정되는 기여 입학제는 개인의 소유물을 양도하는 것에 제약을 두는 제도라 할 수 있겠군.
- ③ (가): 왈처의 입장에서 볼 때, 기여 입학제는 경제 영역의 가치인 돈이 교육을 침범한 것으로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에 어긋나는 제도라 할 수 있겠군.
- ④ (나): 롤스의 입장에서 볼 때, 일정 소득 이상의 부유층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최소 수혜자를 위한 것이라면 차등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군.
- ⑤ (나): 노직의 입장에서 볼 때, 일정 소득 이상의 부유층에게 초과 세율을 적용하자는 주장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군.

19.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호 간에 우열을 가리게 되어 경쟁적인 분위기를 조장하는 상황
- ② 상호 간에 다양한 가치를 공유하게 되어 서로를 신뢰하게 만드는 상황
- ③ 상호 간의 이익과 손해를 따지게 되어 인간적인 유대감이 파괴되는 상황
- ④ 상호 간의 개인적 정보를 모르게 되어 합리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상황
- ⑤ 상호 간에 효율성을 중시하게 되어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얻으려는 상황

20.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늠했다                      ② 분석했다                      ③ 내세웠다
- ④ 제공했다                      ⑤ 살펴봤다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평소 쥐를 무서워하는 사람의 눈앞에 쥐가 나타난 상황을 가정해 보자. 아마도 그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본능적으로 비명을 지르며 도망갈 것이다. 왜 그럴까? 쥐를 본 시각 정보는 가장 먼저 뇌에 있는 시상으로 전송되고, 시상에 전송된 정보는 편도체와 시각피질로 각각 전달된다. 그런데 생존 본능으로 즉각적인 신체 반응을 유도하는 편도체는 이성적인 사고 과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시각피질에 비해 처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는 비명부터 먼저 지르게 된다. 이처럼 편도체는 공포 상황에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사람이 일반적으로 공포 상황에 직면했을 때 편도체는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킨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부신에서 아드레날린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한다. 혈류로 유입된 아드레날린으로 인해 혈관이 확장되고 심장 박동 수가 높아지며 심장이 한 번 박동할 때 내보내는 혈액량인 박출량도 증가한다. 또한 호흡 속도가 빨라져 평소보다 많은 산소가 체내로 유입된다. 이러한 생리적 변화로 인해 근육에 평소보다 많은 양의 산소와 열량이 공급됨으로써 우리 몸은 공포 상황에 더욱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실신할 정도로 매우 강한 강도의 공포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심장 박동 수와 박출량을 무리하게 늘린다. 이처럼 심장이 과도한 자극을 받게 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우리 몸을 안정시키려고 한다. 이로 인해 심장 박동 수와 혈압이 낮아지고, 맥박 수가 떨어진다. 정상적인 성인의 1분간 맥박 수는 보통 60~80회 정도인데,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결국 뇌로 가는 혈류량이 부족해지거나 순간적으로 혈류가 중단되기도 한다. 심한 공포감을 느꼈을 때 실신하기도 하는 까닭은 바로 이 때문이다.

한편 공포는 학습되기도 한다. 우리 몸의 편도체는 공포 학습과도 관련이 있는데, 공포 조건화 실험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특별한 반응을 유발하지 않는 중성적인 조건 자극을 불쾌하거나 고통스러운 반응을 유발하는 무조건 자극과 연합하는 과정이 바로 공포 조건화인데, 버몬트 대학의 교수 ① 카프는 토끼에게 불쾌하거나 고통스러운 반응을 유발하는 전기 자극을 제시했을 경우 토끼가 즉각적인 공포 반응을 보인다는 점에 착안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했다. **특정 소리**를 들려줄 때마다 토끼의 발에 약한 **전기 자극**을 가하고, 다른 소리를 들려줄 때에는 아무런 자극을 가하지 않았다. 이렇게 조건화된 토끼는 전기 자극을 단독으로 제시했을 때처럼, 그 특정 소리만 들어도 공포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토끼가 공포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특정 소리를 들려주었을 때 심장 박동 수가 증가했다는 사실과 편도체가 반응했다는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편도체가 손상된 토끼의 경우에는 공포 반응이 사라지거나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우르바흐-비테 증후군’이라는 희귀한 질병에 걸릴 경우 편도체가 포함된 양쪽 측두엽 부위가 칼슘 침착에 의해 그 기능이 상실된다. 이러한 환자들은 공포라는 감정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1.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포 극복 방안과 사례
  - 우르바흐-비테 증후군의 특징을 중심으로
- ② 공포 반응과 공포 학습
  - 편도체의 기능에 따른 신체적 반응을 중심으로
- ③ 공포 조건화 연구와 그 의미
  -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 간 연합을 중심으로
- ④ 생존 본능에 따른 생리적 변화
  - 호르몬이 교감신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중심으로
- ⑤ 자극 강도에 따른 공포 상황의 분류
  -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활성화 과정을 중심으로

22.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박출량은 심장이 한 번 박동할 때 내보내는 혈액의 양이다.
- ② 부신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심장 박동 수가 낮아진다.
- ③ 정상적인 성인의 1분간 맥박 수는 보통 60~80회 정도이다.
- ④ 일반적으로 공포 상황에서는 본능적인 신체 반응이 즉각적으로 일어난다.
- ⑤ 공포 상황에서 호흡 속도가 빨라지면 평소보다 많은 산소가 체내로 유입된다.

23. 윗글을 바탕으로 다음 질문에 답한다고 할 때, 적절한 것은?

질문 : 만약 실신할 정도로 매우 강한 강도의 공포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 ① 공포 자극이 편도체로 전달되어 이성적인 판단을 유도한다.
- ②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근육에 공급되는 열량을 감소시킨다.
- ③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심장이 자극을 과도하게 받게 된다.
- ④ 맥박 수가 정상 이하로 떨어져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부족해진다.
- ⑤ 측두엽 부위에 칼슘이 침착됨에 따라 실신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24. ①이 진행한 실험에서 사용한 **특정 소리**와 **전기 자극**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조건화되기 전에 토끼에게 들려준 특정 소리는 무조건자극이다.
- ② 조건화되기 전에는 특정 소리만 제시해도 토끼의 심장 박동 수가 높아진다.
- ③ 조건화가 되면, 토끼의 발에 전기 자극을 가해도 특정 소리가 없으면 고통이 유발되지 않는다.
- ④ 조건화가 되면, 토끼의 발에 전기 자극을 가해도 편도체가 교감신경으로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
- ⑤ 조건화가 되면, 토끼의 발에 전기 자극을 가하지 않아도 특정 소리를 들려주면 편도체가 반응한다.

[25~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현금이나 예금 및 유가 증권을 일컫는 금융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금융 거래를 한다. 금융 거래는 개인과 금융 기관의 거래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간에도 빈번히 일어나는데, 개인과 금융 기관 간에는 금리를 잘 따져봐야 하고, 개인과 개인 간에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대해 알아야 한다.

금리란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며, 자산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예금자의 입장에서는 같은 금액을 예금하더라도 금리의 방식, 즉 단리인지 복리인지에 따라 수익률이 다르다.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지만, 복리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친 금액에 이자가 붙는다. 예를 들어 원금 1,000만 원을 연 5% 금리로 2년간 예금하면 단리 이자는 매년 50만 원이다. 하지만 복리의 경우 첫째의 이자는 50만 원이나, 다음 해는 첫째의 이자가 포함된 1,050만 원에 5%의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는 52만 5천 원이 되는 것이다. 즉 금리가 같다면, 원금이 커질수록 또 **①기간**이 길어질수록 단리와 복리에 따른 금액의 차이는 커진다.

또한 금리로 인한 실제 수익률을 판단할 때에는 물가 변동률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물가 변동률을 고려하지 않은 금리를 명목 금리라 하고, 물가 변동을 고려하여 명목 금리에 물가 변동률을 뺀 금리를 실질 금리라 한다. 예를 들어, 철수가 100만 원을 연 10% 금리로 예금한다면 1년 뒤 원금에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합계는 110만 원이 된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10%이면 원리금합계의 가치와 1년 전의 원금의 가치가 동일해지기 때문에 철수의 명목 금리는 10%이지만 실질 금리는 0%인 것이다.

금리는 예금자뿐 아니라 금융 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도 중요하다. 돈을 빌리면 대출 이자를 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도 오른다. 따라서 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정 금리와 변동 금리를 따져봐야 한다. 고정 금리는 대출 기간에 금리가 변하지 않지만, 변동 금리는 적절한 금리 조정을 통해 금리가 계속 변한다. 금리의 조정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일부 금융 기관은 자체적으로 산출한 자금 조달 비용에 따라 변동 금리를 결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금융 기관들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준 금리를 반영하여 금리를 책정한다. 기준 금리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시중의 통화량을 **②조절**하기 위해 매달 인위적으로 결정하는데, 경기 과열로 물가 상승의 우려가 있으면 기준 금리를 올려 경기를 안정시킨다. 또한 경기가 위축될 우려가 있으면 기준 금리를 낮추어 경기 활성화를 꾀한다. 기준 금리가 변하게 되면 금융 기관의 금리에 영향을 미쳐 변동 금리로 돈을 빌린 사람의 이자 부담은 커지거나 작아진다.

금융 거래는 개인과 금융 기관 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개인 간에도 이루어진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민법은 금전, 즉 돈을 빌려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금전소비대차로 규정하고 관련 내용을 **③명시**하고 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와 돈을 빌리는 채무자의 합의를 우선시하는데, 이때의 계약은 몇 가지 **④유**의

할 점이 있다.

첫째, 채권자와 채무자는 이자에 관한 사항을 서로 합의해야 한다. 이자 지급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무이자라 원칙이다. 그런데 만일 이자 지급에는 합의를 하였으나 이자율을 정하지 않았으면 연 5%의 법정 이자율이 적용된다. 둘째,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채권자가 요구하는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채권자는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 모두를 요구할 수 있는데 채무자 대신 돈을 갚아 줄 보증인을 제공하는 것을 인적 담보라 하고, 빚 대신 처분할 수 있는 물건을 제공하는 것을 물적 담보라 한다. 물적 담보는 채권자가 처분할 수 있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소유이거나,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라면 소유자로부터 처분에 대한 약속을 받아야 한다. 셋째, 돈을 갚을 날짜를 합의해야 한다. 돈을 갚기로 한 날 채무자는 채권자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면 되지만, 직접 만나 갚기로 할 경우 채권자가 고의로 나타나지 않거나, 받기를 거부하여 갚지 못한다면 사전에 합의가 없더라도 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공탁은 채무자가 돈이나 유가 증권 등을 법원의 공탁소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공탁을 할 경우 그날 돈을 갚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 **⑤상환** 시기에 따른 분쟁을 피할 수 있다.

금전소비대차는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으면 계약이 완료된다. 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계약 해제나 강제 집행을 통해 채무 내용에 대해 강제할 수 있다. 이때 자산보다 빚이 많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를 돕기 위해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①개인 회생 제도**와 **②개인 파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두 제도 모두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개인 회생 제도의 경우는 채무자가 지속적인 수입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고, 개인 회생 제도를 신청할 당시의 수입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법원이 정해 준 금액을 5년간 갚으면 나머지 빚은 면제된다. 그런데 채무자가 지속적 수입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 파산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 신청을 먼저 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 선고를 하고, 채무자가 면책 선고까지 받으면 모든 채무는 없어진다. 이러한 제도로, 과도한 빚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는 있겠지만 선고를 받기 전까지 채무자와 그 주변인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엄청나며, 선고를 받은 후에도 금융 기관과의 신용 거래에 불이익을 당하는 등 정상적으로 경제생활을 하기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25. 밑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채권자의 경제적 손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 ② 금리의 개념과 방식을 언급하고 금전소비대차 계약과 채무자를 위한 법률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③ 금리를 결정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경제학적 개념의 효용성을 살펴보고 있다.
- ④ 금리 변화의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금융 기관과의 금융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법적 측면에서 살피고 있다.
- ⑤ 금리 결정에 내제된 경제학적 원리를 소개하고 법률에 근거하여 금융 기관 간의 금융 거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26.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출 기간에 기준 금리가 변하면 고정 금리의 금리도 변한다.
- ② 물가 상승률이 명목 금리보다 낮으면 예금으로 자산을 증대할 수 없다.
- ③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을 결정하면 통화량이 조절되어 경기가 활성화된다.
- ④ 공탁을 하면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만료되지만 상환 시기에 대한 분쟁은 피할 수 없다.
- ⑤ 금융 기관에서 산출한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변동 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의 이자 부담은 커진다.

27. [가]를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A는 여윌돈 1,000만 원을 2017년부터 예금하기로 하고 금융 상품 중 연 8% 단리 상품과 연 5% 복리 상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은 매년 연 3%로 예측된다.

\* 단,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은 고려하지 않는다.

- ① A가 단리 상품에 예금하면 매년 80만 원의 이자를 받게 되겠군.
- ② 예금 후 1년이 되는 날의 원리금합계는 복리 상품보다 단리 상품이 더 많겠군.
- ③ A가 단리 상품에 예금하면 1년이 되는 날의 실질 금리는 5%라고 할 수 있겠군.
- ④ 예금 후 2년이 되는 날, 그 해에 발생한 복리 상품의 이자는 1,050만 원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겠군.
- 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예금 후 1년이 되는 날에 적용되는 단리 상품과 복리 상품의 실질 금리가 같겠군.

2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검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A는 주택을 구입하고자 B에게 돈을 빌리고 개인 간의 금융 거래에 관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에 채무자 A와 채권자 B는 돈을 갚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인적·물적 담보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고, 원금은 지정 날짜에 만나서 상환하기로 했다. 이자는 매달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자율은 정하지 않았다.

- ① A와 B가 인적 담보에 합의했다라도 B는 보증인을 요구할 수 없다.
- ② A가 지정 날짜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B는 채무 내용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 ③ A의 소유가 아니면 B는 처분에 대한 약속을 받은 물건이라도 물적 담보로 설정할 수 없다.
- ④ A와 B가 이자율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무이자 원칙에 따라 A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 ⑤ 원금 상환 날짜에 B가 나타나지 않아도 A와 B 사이에 사전 합의가 없으면 A는 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2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채무자가 일정 금액을 5년간 갚아야 빚이 면제된다.
- ② ㉠은 ㉡과 달리 채무자가 자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 ③ ㉠은 ㉡과 달리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 ④ ㉡은 ㉠과 달리 채무자의 수입에서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 준다.
- ⑤ ㉡은 ㉠과 달리 채무자가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